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종교



저 사람은 그 목수가 아닌가? (마르 6,1-6 (나))

한국 교인 65% "해외 선교 관심" 단기선교 경험 전체 교인 24%

한국교회 성도들의 선교 열망은 높지만 실제 사역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인 10명 중 6명이 해외 선교에 관심을 보였지만, 선교 경험이나 이주민 대상 사역 참여는 여전히 저조해 관심과 실행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의 약 65%가 해외 선교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50세 이상 장년층의 관심도는 70%로 높았으나, 20대는 44%에 그쳐 세대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단기선교 경험자의 78%는 선교에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됐다고 응답했지만, 실제 단기선교 경험자는 전체 교인의 24%에 불과해 기회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인 절반가량은 후원을 통해 선교에 동참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45%가 물질, 48%가 기도로 선교를 지원한다고 밝혔으며, 특히 60세 이상 중직자층에서 후원 참여율이 높았다. 교회의 87%는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후원하는 등 해외 선교에 관여하고 있었고, 교인 29명 이하의 소형교회도 78%가 선교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주민 선교 분야에서는 인식과 실천의 간극이 뚜렷했다. 한국 내 이주민이 265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는 가운데, 교인의 87%와 목회자의 99%가 이주민 선교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실제 사역에 나선 교회는 16%에 그쳤다. 특히 대형교회의 참여율이 49%에 이른 반면, 중소형 교회는 10% 내외에 머물렀다. 한편 해외 선교사의 82%는 귀국 후 이주민 사역에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해 새로운 인력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주민 선교 확대를 위한 과제로 목회자들은 '전문 사역자 양성' (36%)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배타성 극복' (25%), '이주민 특성 이해' (22%) 등이 뒤를 이었다. 교인들은 언어별 예배 및 교제 공간 마련 (37%)과 '정착 지원' (23%) 같은 실질적 지원을 기대했다.

최근 3년 내 선교 훈련을 실시한 교회는 44%에 그쳤으며, 규모가 작을수록 훈련 기회가 부족했다. 향후 필요한 훈련 내용으로는 '이주민 대상 선교' (49%)가 가장 높았고, '지역사회개발' (20%), '비즈니스 선교' (17%) 순으로 조사됐다.

선교 후보생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으로는 '영적 성숙' (64%)이 1순위로 꼽혔으며, 이어 '타문화 수용성' (47%)과 '외국어 능력' (44%)이 뒤를 이었다. 앞으로는 '리더십 양성' (31%)과 '새로운 세대 이해' (29%)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한 향후 10년간 선교 환경을 변화시킬 요인으로는 '미디어' (34%), 'AI' (28%), '세대 인식 차이' (30%)가 지목됐다. 선교사 42%는 인공지능이 선교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사람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났으며, 어린 시절 친구들과 어울려 소꿉장난 하던 고향, 보고 싶은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이 웅기종기 모여 사는 고향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도 전도 활동을 시작하신 후 여러 곳을 다니시며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잠시 짬을 내어 제자들과 함께 고향 나자렛 마을을 방문하셨습니다. 모처럼 고향을 찾으신 예수님의 마음도 아마 감회가 깊으셨을 것입니다. 때마침 안식일이 되자, 늘 하시던 대로 회당 예배에 참석하셨고, 그 기회에 고향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지혜로 가득 차 있었고 권위가 있었으며, 능력으로 충만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에 탄복하였고 그분의 능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명성이 자자한 것을 시기한 나머지 그분을 배척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분이 자기네들과 함께 자란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훌륭한 교훈과 놀라운 능력에 감동하면서도 단지 그분이 요셉의 아들이라서 목수라는 점, 그분의 어머니와 친척들이 자기네들과 같은 마을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신분 때문에 그분을 거부하였고 그분의 참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고향사람들이 보여준 탄복과 배척의 연유를 좀더 자세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 주님은 고향을 떠나 주로 다른 지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고 많은 사

람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문이나 성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분이 하신 진리의 말씀과 초자연적인 기적을 순수하게 받아들였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위대한 메시아로 확신하게 되었고 그분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삼시간에 온 유대와 갈릴래아 지방에 두루 퍼졌고 예수님의 고향에도 전달되었습니다.

고향사람들은 금의환향하시는 예수님을 처음에는 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였습니다. 과연 소문대로 그분의 말씀은 너무도 당당하고 권위가 있었으며 그분의 능력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출신과 직업과 학벌을 의식하지 시작하였습니다. 뻔히 아는 것이지만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목수에 지나지 않았고 그분의 친척들 역시 자기네들에 비해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가 출중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분의 성분을 앞세워 그분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구약시대의 예를 들어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 예언자라도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 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의 완고함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을 내세워 당신의 뜻을 전달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과거의 역사를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30년 동안 함께 사신 예수님의 참모습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그분이 배부시려던 은총의 선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변인을 선

정하실 때 인간적인 기준이나 세속적인 지위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로지 당신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따르려는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개가 인간적인 편견으로 이웃을 판단합니다. 사람됨됨이를 보지 않고 피상적인 용모나 드러난 성분만을 따집니다.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 자체를 배척합니다. 하지만 세속적인 편견을 버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안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이었습니다." (마태 11.25-26) 바오로 역시 비슷한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있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셨으며 강하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1고린 1.27-28)

우리도 무엇을 좀 안다고 자부하거나 자기 생각대로 신앙을 저울질하지 맙시다. 그렇다고 성경이나 교리 공부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리 지식이나 교회 상식을 넓히는 것은 신앙을 키우기 위하여 매우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진하게 받아들이고 진실하게 믿고 착실하게 실천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 사람의 출신이나 신분이나 외모만을 앞세워 진실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성민호 신부-

Sandy Kim 라인댄스 초급반 오픈

NOW OPEN

제일 잘 가르치기로 소문난 샌디 김의 라인댄스 초급반이 드디어 오픈합니다

- 남녀노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춤!
- 스트레스 해소
- 정신 건강 증진
- 만성질환 예방
- 치매 예방 효과



<초급반>
월·목요일: 오전 9시~10시 15분

<중·고급반>
월·목요일: 오전 10시 30분~오후 12시

<등록비>
일주일에 두 번 참여시 월 \$80
한 번 참여시 월 \$45

★ 한국어로 수업 진행 ★

T.562.279.4200

305 E.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